

최충[崔冲]

고려의 공자, 9재 학당을 설립하다

984년(성종 3) ~ 1068년(문종 22)



1 개요

‘해동공자(海東孔子)’라는 별칭으로 널리 알려진 최충(崔冲)은 고려전기 문벌귀족사회의 전성기를 열었던 인물이다. 고려는 이전의 고대국가들과 달리 출신성분에만 의거하여 개인의 정치적 지위를 결정짓던 사회가 아니었다. 좋은 혈통을 타고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고려 사회에서는 관직에 진출해 공적을 드러내었을 때 비로소 최고의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 음서(蔭敍)와 같은 특권을 기존 지배층에게 부여함으로써 지위 세습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지배층 내부에서도 배타적인 계급내혼을 통해 폐쇄적인 신분구조를 유지하였으나, 기본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실패와 성공은 개인의 역량에 크게 좌우되었다.

이러한 문화를 대변하는 제도가 바로 과거시험이다. 다수의 고려 지배층은 음서를 통해 관직을 받았음에도 과거시험에 응시하였다. 과거는 학문적 소양을 평가받는 자리이자 개인의 역량을 공식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이러한 과거제도의 확대와 함께 문벌귀족사회의 문화는 보다 고상한 방향으로 발전하였으며, 고려의 지배층은 자신들의 지적 욕구를 해소해줄 수 있는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된다. 최충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에 부응하였던 인물이다. 사학(私學)을 창시하여 유학 교육을 전사회적으로 확대시켰던 그는 한 시대의 학문풍토를 변화시키는 데 실로 큰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고려전기 통치체제 정비과정과 최충의 등장

최충의 자는 호연(浩然)이며, 호는 성재(惺齋)·월포(月圃)·방회재(放晦齋)이다. 984년(성종 3)에 해주(海州)의 향리였던 최온(崔溫)의 아들로 태어나 해주를 본관으로 삼았다. 그가 태어난 성종 시기는 고려가 중국 당나라의 제도를 수용하여 관료체제를 정비하고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내세웠던 때이다. 성종은 새로운 정치운영원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학 교육을 강조하였다. 학문에 정진하지 않으면 올바른 것을 알 수 없고 현명한 사람을 임용하지 않으면 공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 성종은 992년(성종 11) 서울과 지방의 생도들에게 공부를 권장하고 문(文)·무(武)를 통틀어 재능 있는 사람을 뽑도록 하였다. 관련사료 이육고 같은 해 12월에는 국자감(國子監)을 설립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관련사료 고려의 국립교육 시스템을 한층 정비하였다.

성종대에는 지방에 향교(鄕校)가 건립되면서 유학 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동시에 중앙 집권화 정책과 함께 과거 급제자를 우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지방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많은 수의 향리세력이 과거를 통해 중앙 정계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최충의 등장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가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다. 어린 시절 행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지방 유력인사의 자제였던 최충은 아마도 향교를 통해 처음 학문을 접하고 중앙 정

제로의 편입을 위해 과거시험에 몰입하였을 것이다. 그 결과 1005년(목종 8)에 최충은 지공거(知貢舉) 최항(崔沆)이 주관하는 과거에서 합격의 기쁨을 만끽한다. [관련사료](#)

최충이 응시하였던 과거시험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1년 전인 1004년(목종 7)에 목종은 과거법(科擧法)을 개정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응시자는 여러 날에 걸쳐 시험을 치러야 했다. 첫 번째 날에는 『예기(禮記)』에 대한 지식을, 두 번째 날에는 시(詩)와 부(賦)를 평가받았으며 하루를 건너뛰어 네 번째 날에는 시무책(時務策)을 보았다. [관련사료](#) 이와 같이 엄격한 시험에서 최충은 약관의 나이로 장원을 차지하였다. 그의 능력은 한 차례의 과거시험을 통하여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최충의 정치적 활약

1005년(목종 8)의 과거시험에서 최충을 선발한 최항이 현종[고려](顯宗)의 즉위과정에 기여하게 되자 그의 문생(門生)이었던 최충은 현종 시기에 출세가도를 달리게 된다. 고려 시대에는 좌주와 문생 간의 유대가 깊었다. 과거를 주관한 지공거와 선발된 급제자 사이에는 마치 부자관계와 같은 강한 유대감이 형성되곤 하였다. 좌주는 문생을 후원하고 문생은 좌주를 섬기며 서로를 정치적으로 보호하였는데, 최충 또한 좌주였던 최항의 후원으로 수월하게 관료생활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고려는 목종의 어머니인 천추태후(千秋太后)가 정권을 장악하고 김치양(金致陽)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을 목종의 후사로 삼고자 하는 등 파행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에 최항은 채충순(蔡忠順)과 함께 태조 왕건(太祖 王建)의 손자이자 목종의 사촌인 대량원군(大良院君)을 맞아들여 왕위를 잇게 하였다. 이 사람이 바로 현종이다. 현종은 즉위 직후 최항을 정당문학(政堂文學)에 임명하여 재상의 반열에 올렸다. [관련사료](#)

이처럼 최항과 그의 주변세력에게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최충은 습유(拾遺), 보궐(補闕), 한림학사(翰林學士), 예부시랑(禮部侍郎), 간의대부(諫議大夫) 등 학문적 소양을 필요로 하는 관직을 두루 역임할 수 있었다. [관련사료](#) 그리고 다음 왕인 덕종(德宗)의 치세에서는 우산기상사·동지중추원사(右散騎常侍·同知中樞院事)에 임명되었다가 형부상서·중추사(刑部尙書·中樞使)로 승진하였다. [관련사료](#)

정종[고려](靖宗)이 즉위하자 최충은 상서좌복야·참지정사·판서북로병마사(尙書左僕射·參知政事·判西北路兵馬事)에 임명되어 변경의 성과 해자를 수축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그는 영원진(寧遠鎭)과 평로진(平虜鎭)을 비롯해 14개의 요새를 설치함으로써 북방의 수비를 강화하였고, 그 공로를 치하받아 고려에서 두 번째로 높은 관직인 내사시랑평장사(內史侍郎平章事)에 제수된다. [관련사료](#)

이후 문종(文宗) 시기에 최고 관직인 문하시중(門下侍中)으로 승진하였다. 율령(律令) 연구를 통해 제도를 정비하는 데 힘쓰던 최충은 민생과 외교문제 또한 앞장서서 해결하였다. 흉년으로 인해 굶핍해진 서북지방 백성들에게 부역의 부담을 줄여주고 고려에 억류되어 있던 동여진(東女眞) 추장 염한(塩漢) 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북방의 불안요소를 잠재운 것 모두 그의 공이었다. [관련사료](#) [관련사료](#)

이와 같이 다양한 관직을 역임하는 가운데 최충은 두 차례에 걸쳐 지공거를 맡아 과거시험을 주관하기도 하였다. 고려에서 지공거는 학문적 역량이 최고 수준에 이른 사람만 임명될 수 있는 명예로운 직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지공거가 되었던 최충은 명실 공히 당대 최고의 유학자임에 틀림없었다. 1026년(현종 17)에 최충은 내사사인(內史舍人)으로서 시험을 관장하여 최항(崔沆)을 선발하였고, [관련사료](#) 1035년(정종 원년)에는 형부상서(刑部尙書)로서 지공거에 임명되어 김무체(金無滯)를 뽑았다. [관련사료](#) 이 외에도 홍덕성(洪德成), 최상(崔尙), 최유부(崔有孚), 김정(金正), 김양지(金良贄), 오학린(吳學麟)이 그가 주관하는 과거시험에서 합격의 영광을 누렸다.

고려전기를 선도하였던 최충이었기에 고려의 국왕들은 그에게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많은 부분을 의지하였다. 1053년(문종 7)에 최충이 70세가 되어 치사(致仕)를 요청하자 문종[고려](文宗)은 “시중 최충은 여러 대에 걸쳐 유종(儒宗)으로서 삼한(三韓)의 덕을 이룩하였다. 지금 비록 늙어서 물러날 것을 요청하지만 허락할 수 없다”고 하며 더욱 높은 지위를 내려주려고 하였다. 결국 국왕의 간곡한 바람으로 최충은 중서령(中書令)까지 역임한 이후에도 벼슬에서 물러날 수 있었는데, 이후에도 문종은 국가에 중대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를 찾아 자문을 구하였다. [관련사료](#)

4 사학의 창시와 문헌공도(文憲公徒)

